

K-관광특구(Tourism Special Zone):

한강을 품은 최초의 K-관광 특구, 서울 서초구의 고투몰(GOTO Mall)

나소휘*

1. 고투몰(GOTO Mall)의 관광 특구 지정

고투몰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를 줄여서 부른 말이다. 고투몰은 현재 한국에서 지하 최대 쇼핑몰로 알려져 있다. 그 규모는 잠실역 지하상가의 6배, 강남역 지하상가의 3배 규모로 확인된다.

이곳에는 총 620여 개 상점이 있다. 카페, 음식점, 꽃시장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으며, 각종 의류,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고투몰의 지상은 고속터미널로, 전국 79개 버스



사진1. 고투몰 일대의 모습(출처: 서초구청)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이다. 서지학 및 문헌 정보 전반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계획이다.
hwiax0@kakao.com

노선과 지하철 3,7,9호선이 연결된 서울의 대표 교통거점이자 복합도시문화공간이 있다.

아울러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투몰 지하상가, 엔터식스, 파미에스테이션, JW메리어트호텔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쇼핑, 외식, 문화, 휴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반포한강공원 또한 세빛섬, 달빛무지개분수 등 서울의 랜드마크가 있고,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수상 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았다.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에 이곳을 관광 특구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관광 특구 지정 조건은 몇 가지 까다로운 충족시켜야 했다.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이상 방문해야 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광편의 시설들을 갖춰야 하며, 특구로 지정하려는 각 구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서초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서초구는 단절된 고속터미널 일대와 반포 한강공원 일대를 잇기 위해, 반포대로 남측 횡단보도와 반포동 횡단보도 개통, 고속터미널 횡단보도 신설(하반기 예정), 공공 보행 통로 개방으로 각 구역의 연결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24년 12월에 관광 특구로 지정되었다. 이번 관광 특구 지정은 서울에서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강남마이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에 이어 8번째다.

관광 특구 지정으로 일단 고투몰 주변에, 관광편의시설,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에 관광 진흥 개발 기금 우대금리 융자지원이 가능해지고 옥외광고물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관광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야간 영업제한, 옥외영업 제한 규제의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구 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해 각종 예산이 지원된다.

아울러 주민과 관광객이 고속터미널~반포한강공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터-세빛 관광안내센터 운영과 더불어 세심한 통합 안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서울의 24시간 벽화와 피카소 벽화를 등을 더욱 확장해, 피카소벽화 맞은편 유희 공간은 벽면을 활용해 아트조명을 설치하고,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잠수교 지하보도는 어번캔버스 사업으로 예술적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2. 고투몰(GOTO Mall)의 관광 특구 지정

고투몰은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패션과 뷰티 상품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www.kci.go.kr

국내인들도 많이 찾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고투몰을 많이 찾고 있다. 2023년 일본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해외 여행지 1위에 '고투몰'이 선정됐다. 일본 대형 여행사 HIS 조사로 서울을 찾는 일본 여행객 상당수는 한국 문화에 반한 젊은 여성이며, 여기에 '고투몰'이 선정되었다는 보도였다.

고투몰에서 판매하는 의류 가격은 대부분 가격대가 1만 원대가 대부분이고, 아무리 비싸도 5만원을 넘기지 않는다. 동대문 같은 대형 상가의 경우, 개별 소비자가 가면 소매가격을 받지만, 고투몰은 도매가로 물건을 떼와 이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다.¹

고투몰에서는 최근 밀집된 미로처럼 자리한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고투몰의 길 안내를 돕는 실내 내비게이션 '고터맵'이 출시됐다. 고터맵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상점마다 도로명·기초번호를 부여해 구축한 공간 데이터 정보로 모의 주행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또 증강현실(AR) 모드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해 주변 상점을 인식하면 상점 정보를 표시하고, 관광객을 위해 영문으로도 안내한다. 이 외에도 '빠른 길 안내'로 가장 가까운 출구와 화장실을 알려줘 비상시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²

고투몰은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업종을 바꾸는 등 세대 교체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젊은 외국인 관광객도 이곳을 방문하여 고투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K-Culture'라는 보다 적합한 용어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이제 'K-컬처'는 한국을 뜻하는 'K'라는 접두사에 상품 카테고리를 뜻하는 단어를 결합하면서 'K-엔터테인먼트'에 속하는 △K-팝 △K-댄스 △K-뮤직 △K-드라마 △K-필름 △K-예능 △K-웹툰 △K-애니메이션 △K-공연 △K-게임 등 무형 상품 분야와 'K-문화 상품'에 속하는 △K-푸드 △K-패션 △K-테마 파크 △K-관광 △K-놀이 공원 △K-쇼핑 등 유형 상품 분야가 골고루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서초구는 이번 고터 관광 특구의 지정을 통해 서울의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한강의 아름다움과 자연과 결합된 세빛 관광특구가 함께 지정됨으로서 앞으로 서울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관광 특구와

1 여기 싸고 너무 좋아요: 일본 MZ세대 홀린 고터 지하상가. <조선일보>. 2023년 3월 29일자. <https://reality.chosun.com>

2 서초 소식지. <https://seocho.newstool.co.kr>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서초구의 관광 특구가 아니라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관광지, K-컬처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